

#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 — 국제학교 학부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임\*·윤명희\*\*

- I. 들어가며
- II.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개과정 및 도시 현황
  - 1.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개과정
  - 2. 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현황
- III.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IV.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 1. 주거 및 편의시설 여건
  - 2. 교육 여건
  - 3. 의료 여건
  - 4. 여가 및 문화 여건
  - 5. 정체성 : 소속감 및 유대감
- V. 나가며

### 국문요약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담론에 의해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제주영어교육 도시는 외화 유출 방지 및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조성된 공간이다. 2011년부터 이 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 주저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 여건을 사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 특수한 도시의 사회적 주체들의 생활실태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구현하고자 한 도시 공간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주체들의 거주 현실 간의 격차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언론 매체 등에 의해 알려진 귀족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도시 환경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의료 여건 등은 매우 취약한 편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비싼 시설 임대료와 관련이 있다. 교육 여건은 한국학교에 비해 우수한 학교시설과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해외 대학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고액의 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제주지역 이외의 수도권에서 온 주민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주 공간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임시 거주 공간이었다. 이들은 자녀의 교육이 끝나면 원래 거주지로 돌아간다. 이곳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간의 사교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는 맺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이라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은 거의 없었다.

주제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교육 이주, 제주사회변동, 신자유주의와 도시

## I.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제주사회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동시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제주지역의 개발정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간 제주지역의 개발정책은 한국의 산업화 이후 국가의 주도로 공간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주변부적 지위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 요구에 따라 관광산업과 국제자유지역화를 지향하면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다.<sup>1)</sup>

국제화된 교육환경의 구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띤 제주영어교육도시

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사업이다. 2006년에 재정경제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곳은 2009년부터 실제적인 도시 공간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 국제학교가 들어서고 주거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건설되면서, 이 도시는 국제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타 지역 출신의 한국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제주의 국제학교로 한국인이 몰려오는 것은, 내국인의 입학기준이 다른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달리 제한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sup>2)</sup> 다른 지역의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에 1명이 외국인이거나, 한국 부모인 경우에도 자녀가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sup>3)</sup> 이런 외국인학교의 제한적인 입학 자격 기준으로 인해, 한국의 일부 부유층은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녀의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sup>4)</sup> 그러나 제주의 국제학교는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각 국제학교의 기준에 맞는 입학시험만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졸업 시에는 본교 소재 (해외)국가와 한국에서 동시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교육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자녀의 해외 유학을 대체하는 대안으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선택하고 있다.

1) 조성운,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신행철외,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7, 71-103쪽;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앞의 책, 1997, 273-311쪽.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제주지역의 국제학교에 적용되는 이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교육기관법 제10조(학생정원)와 제11조(학력인정)를 참고 바란다.

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약칭 외국인학교법). 제10조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4) 한겨레, 「박○아·노○정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 2013년 2월 19일자; 중앙일보, 「노○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벌금 1500만원」, 2013년 8월 11일자. 기사의 주요 내용은 기업 대표, 의사, 유명 연예인 등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이들에 대한 처벌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장점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오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제주사회는 새로운 공간이 발생됨과 더불어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게 되었다. 김민영·최현은 2011년 이후 제주로는 국내 정착 주민의 유형을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이주 유형 가운데 귀농·귀촌, 창업, 문화·예술 정착 유형을 한국사회의 성장주의와 시장주의에 대립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대안적 삶을 지향하는 이주 정착 유형 이외에 기업 이전이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제주에 정착하는 이주 유형은 앞서 기술했듯이 국가에 의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한 교육 이주 현상이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근황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드물게 접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의 대부분은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나 가시적인 도시 추진 상황을 다룬 기사가 주류이다.<sup>6)</sup>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방향 및 영어상용화 정책 방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 및 국제학교의 공간 구성, 제주지역과 해외 영어정책의 사례 비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up>7)</sup>

5)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호, 2015, 39-78쪽. 연구자는 제주에 정착한 이주 인구의 유형을 기업 이전, 교육, 귀농·귀촌, 창업, 문화·예술 정착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6) 동아일보, 「영어교육도시가 제주경제 효자네」, 2014년 3월 24일자; YTN, 「제주 영어 교육도시 눈에 띄네...네 번째 국제학교 착공」, 2016년 5월 1일자; 한국일보, 「문화예술, 호텔 등 특성화학교 제주영어교육도시 유치」, 2017년 4월 21일자.

7) 김봉애·김수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건축물 특성 및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Vol.11 No.4, 2013, 273-282쪽; 김원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제주의 영어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8; 김원보·이용민, 「필리핀의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 방안」, 『영어영문학 연구』 Vol.12 No.2, 2007, 1-13쪽; 김종훈,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영어영문학 연구』, Vol.46 No.4, 2004, 217-242쪽; 박순철, 「동북아의 교육허브를 꿈꾼다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유치 추진 상황」, 『본질과 현상』, Vol.22, 2010, 240-244쪽; 양영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이렇게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관해서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성과가 부각되는 문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민호는 200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세계화 이념에 순응하는 제주지역의 국제화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제주사회 공교육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8)</sup> 또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국제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도 있다. 이들은 제주의 국제학교를 귀족학교 또는 상류층학교라고 규정하면서, 제주의 국제학교 건립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을 경제논리에 맡기고 학교를 상품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나 언론 자료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이 도시의 주체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의 기능적인 역할이나 가시적인 성과만을 기술하는 한계가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구하는 도시 계획에는 국제학교나 해외 대학 유치 등과 같은 교육적인 환경 조성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인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제학교를 유치해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한다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실제 영어권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도시환경을 이곳에 만든다는 목표도 동시에 공존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헌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구성원들의 삶, 즉 도시의 구성원인 이들에 관한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사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 특수한 교육 도시의 사회적 주체들의 생활실태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학문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바람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김민호,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2호, 2007, 23-48쪽; 김민호, 2009, 「세계화에 따른 제주 지역 국제학교 설립 및 일반계 학교의 대응 방안」, 『초등교육연구』 Vol.14 No.1, 103-126쪽.

9) 미디어제주, 「소수 상류층 위한 귀족학교 VS 교육산업 위해 필요」, 2008년 8월 18일자; 제주의소리,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성 없고 사교육 ‘황금어장」, 2008년 09월 08일자.

## II.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개과정 및 도시 현황

### 1.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전개과정

제주지역의 개발정책은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조응하도록 이루어졌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주요 방향은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실제적으로 불균형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국가의 경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제주를 국가 주도 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추진은 여러 여건상 불투명하여 관광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계획이 축소되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면서 제주는 급속하게 관광산업이 팽창하였고, 한국 경제에서는 제주가 이국적인 관광의 섬으로서 분업적으로 통합되었다. 제주의 관광산업 육성은 장기적으로는 국제자유지역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서, 외화 획득과 자본 수입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정책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동안 제주의 개발정책은 크게 네 단계로 전개되어 왔다. 먼저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관광지화를 추진하다가, 국민관광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전략을 전환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개발정책 기조에 따라 제주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국내 관광산업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제주 국제자유개발센터(Je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약칭 JDC)를 두고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상의 자치 분권이

10) 이상철, 앞의 책, 1997, 273-311쪽.

11) 이상철,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99-136쪽.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center.com](http://www.jdccenter.com)). 약칭 JDC. JDC는 2002년 5월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전담기구이다. 이곳에서는 의료, 첨단과학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현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주지역은 개발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sup>13)</sup>

국제자유도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주지역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초기 핵심프로젝트가 아니다.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 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 미항을 조성하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일부 변경하면서 신규 프로젝트로 제주헬스케어타운(첨단의료복합단지)과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운(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추가되었다.<sup>14)</sup>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자, 이후 2006년 말 재정경제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sup>15)</sup> 발표 이후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대규모 제주지역 개발정책사업이 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보성리, 신평리 일대(3,792,049m<sup>2</sup>)이다.<sup>16)</sup> 이곳에 교육과 도시 공간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각 부처의 행정 기능과 역할을 분장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현안을 총괄하면서 협의·조정하며,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선 및 소요 예산 지원을, 교육부는 학교설립·운영지원 및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산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여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계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상의 분권을 명시하고 있다.
- 14)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
- 1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16)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된 공간은 약 115만평이다.

방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관한 실질적인 집행은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가 하고 있다.<sup>17)</sup>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는 제인스(Jeju International Schools)에서 집행하고 있다. 제인스는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가 출자한 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서, 최근에 법인명이 주식회사 해울에서 제인스로 변경되었다.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를 보면 첫째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외 유학으로 발생하는 외화 유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외화 유입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해외 유학으로 인한 가족체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인 거주 비율을 높여서 국제화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sup>18)</sup>

## 2. 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현황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간은 스쿨존, 대학존,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 시설 등 네 곳으로 구획되어 조성되고 있다. 스쿨존은 영어로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기획에 따라 2017년 현재 세 곳의 국제학교가 있고, 대학존에는 교육·관광·예술·전문 분야의 대학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여 복합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며, 영어교육센터는 교육부 주관(국비지원)하에 영어교사와 공무원을 연수하면서 영어교육정책에 관한 연구개발과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있다. 주거·상업 시설은 ‘도시·건축·경관 분위기를 영어권 국가의 이미지로 조성’하고 ‘공공청사·병원·쇼핑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영어가 통용되는 영어 상용화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공간이 계획되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간은 녹지와 학교 용지가 도시기반시설의 절반 이상이다([그림 1] 참조).<sup>19)</sup>

17) 김태경,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16-10, 한국경제연구원, 2016, 14-51쪽.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서 사업비의 총 규모가 약 1조 9,256억 원이다. 공공자원 4,592억 원과 민간 1조 3,218억 원이 투입되었다.

18) 제인스 홈페이지(www.jeins.co.kr).



[그림 1]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현황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 홈페이지
- \* 주: 1)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2) 제주영어교육센터, 3) 영어교육도시사무소, 4) Korea International School, 5) Branksome Hall Asia, 6)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7) Saint Johnsbury Academy(10월 개교 예정)

이곳은 2009년에 도시 기반 공사가 마무리 되자 학교와 주택, 편의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 학교 인근 주택 용도의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들이 2017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공급한 약 천육백 세대의 공동주택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최근에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는 공공임대주택 육백 세대를 건설 중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주 사회에 있었으나, 2017년 8월에 공공임대주택 완공될 예정이므로<sup>20)</sup> 더 많은 인구가 이곳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https://www.jdccenter.com/business/edu/jejuen.cs>); 김태경, 앞의 글, 2016, 23쪽.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토지이용률은 주거 14.7%, 상업 10.9%, 도시기반시설 83.3%, 기타시설 0.2%로 구분하여 계획되었다. 도시기반시설에는 학교, 외국교육기관, 녹지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정보는 JDC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20) 제주의 소리, 「JDC 국제학교, 이번엔 ‘임대주택 지원’ 특혜 논란」, 2013년 03월 18일자.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와 더불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이하 NLCS),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이하 BHA)가 개교하여 운영 중이다. NLCS와 BHA는 각각 영국과 캐나다에 본교를 두고 있는 사립학교이다. 위 학교는 모두 유·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국제학교는 유·초·중등과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설립한 곳으로서 공립학교이며, 현재 YBM시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제학교의 고등과정은 (주)YBM이 직접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이다. 위 세 학교의 교육비는 기숙사 비용을 포함하여 연평균 약 사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이다.<sup>21)</sup>

〈표 1〉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현황

구분	한국국제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KIS high school	NLCS Jeju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BHA (Branksome Hall Asia)
설립별 운영법인	설립 : 공립(초·중) 운영 : 사립 (주)YBMJIS 운영위탁	사립(고등) (주)YBMJIS	사립 (주)제인스 (JDC자회사)	사립 (주)제인스 (JDC자회사)
개교일	2011.09.19	2013.08.09	2011.09.26	2012.10.15
교육과정	유·초·중·고등학교(통합)		유·초·중·고등학교 (통합)	유·초·중·고등학교 (통합)
학급 및 정원수	37학급(PK-8년) 782명	24학급(9-12학년) 480명	74학급(N-13학년) 1508명	60학급(JK-12학년) 1,212명
학생수/ 학급	464명/29학급	258명/14학급	1,005명/72학급	677/37학급 (PYP4부터 여학교로 운영)
교육과정	미국 AERO (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교육과정		영국 NLCS 본교 교육과정	IB 교육과정
국제인증 과정도입	WASC 인증 <sup>22)</sup>		IB 인증 <sup>23)</sup>	IB 인증
학력인정	국내 학력인정		국내·외 학력인정	국내·외 학력인정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 홈페이지(<http://www.jeju.go.kr/edu/eng/educity/summary>)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http://www.jeju.go.kr/edu/eng/educity>).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http://www.jeju.go.kr/edu/eng/educity/summary>).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는 미국서부교육연합회의 약자로서 미국 내의 공·사립학교 및 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담당하는 학력인증기구 중의 하나이다.

<표 1>에는 없으나 2017년 10월에는 미국 사립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T. Johnsbury Academy jeju)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교육시설과 체육, 공연, 행정, 기숙사 등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며, 앞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와 같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재학생 수는 총 2,404명(2015년~16학년도 기준)이다. 세 곳의 입학정원은 3,656명이며, 이 가운데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의 입학정원이 제일 많다. 개교 당시인 2011년 817명에 비해 2015년 12월말에 2,404명으로서 약 3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정원 대비 충원비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국제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380명이며, 학생 대비 교원의 수는 학생 6명 당 교원이 1명이다. 세 학교의 입주시설은 39개이며, 학교와 관련된 상근근로자 수는 809명이다.<sup>24)</sup> 이를 통해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된 인구는 삼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제학교 재학생 중 통학생의 가족이 타 지역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해 정착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된 인구의 수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2017년 현재 제주지역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담론에 의해 국제자유도시화로 개발이 증대되면서,<sup>25)</sup> 외국인 및 한국인

23) 앞의 홈페이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IB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력인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목표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24) 김태경, 앞의 글, 2016.

25)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62-79쪽. 최병두는 데이비드 하비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주동하는 이데올로기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하비는 도시를 자본축적의 기본적 장으로 보면서, 과잉 축적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은 도시 건조환경에 투자함으로써 위기를 회피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도시화를 통해 잉여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며, 역으로 자본주의는 생산된 잉여생산물을 끊임없이 흡수하기 위해 도시화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주의 도시화를 통해 잉여를 흡수하려는 시도는 항상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며, 이런 도시화 과정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하고 피해와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비는 도시의 대중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위기로 인해서 도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의 제주 이주가 증가하여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호남지방 통계청은 제주지역이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 및 국제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올레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제주도의 자연 친화적 가치에 관심이 쏠리면서 제주 이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 이주한 국내 정착 주민, 외국인 투자이민자, 외국출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제주사회가 변화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위 문헌들은 교육 이주자나 국제학교의 학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 3장부터는 2011년 이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온 거주민들의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Ⅲ.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면접에 응답한 사례자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다. 연구자는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면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의 학부모를 통해서 국제학교 행사와 학부모 커뮤니티에 수차례 참여하면서 사례자들을 만

---

보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통해 도시를 재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 26) 김미량 김민영, 「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耽羅文化 54호, 2015, 179-208쪽; 김민영 최현, 앞의 글, 2015, 39-76쪽; 김인성의,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濟州學研究 47집, 2017, 127-161쪽;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호남지방통계청, 2016년 6월 29일자; 염미경,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16권 제1회, 2015, 49-90쪽;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4, 296-315쪽; 윤명희, 제주 지역 외국인선원의 이주와 적응,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났고, 이후 자연스럽게 면접이 진행되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면접할 수 있었다. 면접 초기에는 자녀의 학년 별로 응답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각 학년별 모임에 참여하면서 면접을 했으나 응답 내용이 학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심층면접이 용이한 학부모를 사례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들이 다른 사례자를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을 이어갔다. 연구조사는 이십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질문한 문항에 대해 비슷한 응답을 하는 사례자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유효한 응답을 한 사례자 10명의 심층면접 내용을 인용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사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사례자	성별	연령	학력	자녀	자녀 재학 현황 <sup>27)</sup>	영어교육도시 거주년수	배우자 직업
A	여	40대	대졸	2	8학년, 11학년	5년	의사
B	여	50대	대학원졸	1	6학년	1년	의사
C	여	40대	대졸	2	8학년, 11학년	5년	사업
D	여	40대	대졸	2	7학년, 11학년	1년	약사
E	여	40대	대졸	1	11학년	5년	사업
F	여	50대	대학원졸	1	8학년	3년	사업
G	여	40대	대졸	1	11학년	1년	사업
H	여	40대	대졸	2	6학년, 11학년	4년	금융업
I	여	50대	대졸	1	11학년	2년	사업
J	여	50대	대졸	1	6학년	2년	금융업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주로 생활하는 구성원은 크게 국제학교 학생과 자녀의 통학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온 여성(엄마)이 대부분이다.<sup>28)</sup> K학교 학부모 대표인 사례자 G씨에 따르면, 11학년의 경우 통학생이 20명인데 이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엄마만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와서 자

27) 참고로 제주지역 국제학교 세 곳의 학년은 유치부 과정에서 12학년(고등과정)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28) 참고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기숙과 통학이 혼합 운영되므로 국제학교 학생은 기숙학생과 통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기숙학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을 하므로, 도시 내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주로 통학하는 재학생과 그들의 부모 중 엄마이다. 그리고 통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 그 사례를 들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사례는 학부모로 제한하여 면접하였다.

사례자의 연령대는 사십대 6명, 오십대 4명이며, 이들의 자녀는 국제학교 세 곳에서 초등·중등·고등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 연구에는 자녀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한 기간은 약 1년에서 5년 정도이다. 이 가운데 1명(제주 출생)을 제외한 9명은 전국 각지에서 온 이주민이며, 자녀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배우자 직업은 금융업자, 기업 대표, 의사 등으로서 전문직종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며, 대부분 학력수준이 높은 고소득계층이다. 소득 활동은 가족 가운데 사례자의 남편이 주로 하고 있다. 사례자 중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면접 문항은 제주지역 정착 주민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sup>29)</sup> 사례자의 응답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류한 결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의 생활실태는 주거 및 편의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문화, 정체성(소속감 및 유대감)이라는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의 생활실태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 IV.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주민의 생활실태

##### 1. 주거 및 편의시설 여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국제화된 영어권 국가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어로 된 표

29) 각주 26번을 참고 바란다.

지관, 가로시설물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공공청사, 병원, 쇼핑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도 영어가 통용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도시의 정책 기조이다.<sup>30)</sup>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도시환경은 국가의 초기 구상과 다르다. 아래 사례자 E씨의 말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제학교 선생님을 제외하면 한국인 학생과 학부모가 대부분이다.<sup>31)</sup> 기숙학생을 제외한 통학생들은 부모가 국제학교의 인근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여 자녀의 통학을 돕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타 지역에서 온 한국인들이 대부분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JDC가 처음 도시계획을 발표한 후에 세탁소를 하던 지인이 여기로 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어 구사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괜한 우려를 한 거 같아요. 여기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나 직원들은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영어 정도만 구사해요. 외국인 손님만 국제학교 선생님들 밖에 없어요. 학부모들이 영어를 못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사례자 E)

수도권 일대에서 이곳에 온 이들은 실질적인 원거주지가 육지에 마련되어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택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적인 주거 공간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녀의 학기 운영 기간인 8개월 동안은 제주지역에 있다가 약 4개월의 방학기간에는 사례자의 원래 거주지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이곳 주민들과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도시의 거주 인구는 대폭 줄어든다. 사례자 C씨가 ‘유령도시’라고 소개할 만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방학기간은 도시 인구가 거의 빠져나가는 기간이다.

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http://www.jdcenter.com))

31) 국회입법처, 앞의 글, 2015.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낮다는 것은 2013년과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제주지역 국제학교(NICS, BHA)의 학생 정원 대비 미충원 발생 문제와 학생의 중도탈락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여기서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에 저조한 외국인 학생 비율’, ‘과다한 등록금’, ‘홍보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국제학교는 1년 중에 전체 방학기간이 약 4개월예요.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요. 그 기간에는 영어교육도시는 텅 빈 유흥도시처럼 변해요. 제 남편은 서울에 살고요. 11학년 딸이랑 7학년 아들은 저랑 여기서 셋이 살고 있어요. 학기 중에는 아빠가 주말에 여기로 오지만 방학 기간에는 우리가 서울로 가요. 평소에도 여기 마트나 시설들이 부족해서 불편한데 방학 중에는 그나마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장사가 잘되는 여기 김밥집도 방학기간에는 항상 문을 닫다가 최근에 폐업했어요.”(사례자 C)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국제학교 재학생과 그 가족 가운데 여성인 엄마들이 대부분이다.<sup>32)</sup> 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예전에 살던 지역으로 가는 주된 이유는, 떨어져 살았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학기 중에 단기 방학에는 이곳에 남아서 지내기를 원하는 사례자도 있었지만, 편의시설이 미미한 도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주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학기가 끝나는 방학기간에는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든 소비생활을 제주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머무는 기간에만 이곳에서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만을 하고, 실질적인 소비는 타 지역의 원래 거주지에서 하고 있다.

“여기서는 머리를 밀고 할 수 없어요. 제주시나 서귀포에 미용실이 많은 거 같은데, 애들 방학에 서울로 가서 단골 미용실에서 커트나 파마를 하고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로요.”(사례자 F)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기반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제주 지역 신문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래의 언론 기사는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32) ‘3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참고 바란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2월 제주도의 3.3m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 원으로, 753만 2000원을 기록한 세종시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제주도 아파트 분양가는 18.0%로 상승했다. 전국 평균 3.0%를 크게 상회한다. 제주도의 분양가 상승은 영어교육도시가 견인했다.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맹모(孟母)’들의 관심이 높다. 부동산 거래 관계자는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육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의 공동주택이 모자라 일부 아파트는 약 4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다’고 말했다.<sup>33)</sup>

위와 같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부동산 경기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다. 사례자 C씨의 말처럼 비싼 임대료로 인해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영업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의 방학기간은 사업 경영자에게 사업의 위협요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기피하고 있었다.

“삼정아파트 상가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평소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괜찮기는 한데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되어서 계속 장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 집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임대료는 비싸고 4개월은 휴업 상태처럼 유지해야 해서 부담 된다고 하더라고요.”(사례자 C)

“여기 와서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에 약속이 있거나 볼일이 있어서 나가면, 달치는 대로 물건을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필요하다 싶어서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별별 식품이랑 물건을 다 사게 되요. 여기는 뭐든지 부족하니까요.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결국에 음식 같은 경우는 못 먹고 버리는데도 시내에 나가면 습관처럼 또 막 사게 되요.”(사례자 I)

해외의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영어공용화 지역이라는 매력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해 온 인구는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편의시설은 매우 취약한 편이어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곳의 주택 공급량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인근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방학기간(약 4개월)은

33) 동아일보,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제주경제 효자네」, 2014년 3월 24일자.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인구가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곳 가게들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사업 경영의 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상업시설의 입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제주가 아닌 이전 거주지에서 실질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었다. 편의시설의 부족은 이곳 주민들의 정착에 애로사항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통한 도시 자본의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육 여건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배경에는 유학비의 외화 유출을 감소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적과 더불어 지역개발 차원에서 제주를 동북아시아 교육 허브로 만들어 제주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한국 정부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와 제주지역 국제학교에 한해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 조건을 완화하였다. 제주지역 국제학교는 한국은 물론 본교가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국내 진학은 물론 해외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up>34)</sup>

한편 제주지역 국제학교가 추진된 배경과 교육정책에 대해 김민호와 일부 시민단체는 실체가 없는 세계화 담론으로 인해 제주지역 주민들이 세계화 교육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학교 설립 보다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누며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강

34) 김태경, 앞의 글, 2016, 18쪽. 제주의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의 범위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국한시키고 있다. 전국 외국인학교의 상당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에 따라 설립주체, 시설, 재산, 내국인의 입학조건 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

조하고 있다.<sup>35)</sup>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제주지역에 국제학교가 개교하여 2017년 현재 모두 세 곳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 학교들은 2014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몇몇 학생이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홍콩) 등 해외 대학에 입학하였다.<sup>36)</sup>

이러한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성과에 반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한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본지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학업 중단 학생 현황자료(2013년 9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국제학교(KIS)는 2012~2013학년도 전체 재학생 373명 중 140명(37.5%)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 10명 중 네 명 가까이가 학교를 떠난 것이다. 특히 4학년과 6학년은 절반 넘는 학생(각 59.3%)이 그만뒀다. 2011~2012학년도에도 재학생 353명 중 93명(26%)이 도중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sup>37)</sup>

제주지역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회입법처는 그 원인을 개교 초기의 체계 미흡, 학생 선발 단계에서의 안내 또는 선발 이후 상담 및 관리 미흡, 해외 우수 국제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액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 경제적 이유도 그 원인으로 제기하였다.<sup>38)</sup>

35) 김민호, 앞의 글, 2007, 23-48쪽.

36) 김태경, 앞의 글, 2016, 29쪽. 제주의 국제학교인 Nics jeju와 BHA 졸업생이 입학한 국내외의 대학 이름은 다음과 같다. Nics jeju 출신 졸업생은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옥스퍼드, 스텐포드, 홍콩대, 서울대 동경대, UCLA 등에 입학하였고, BHA 출신 졸업생은 코넬, 홍콩대, 뉴욕대, 보스턴대, 연세대, 경희대 등에 입학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37) 중앙일보, 「한국국제학교 제주, 재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 떠나」, 2013년 11월 13일자. 기사 일부 발췌.

38) 국회입법처,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NARS 현안보고서

그러나 위 문헌에서 드러난 원인 이외에 연구자의 면접조사에서는 또래집단 간의 갈등과 성적 문제가 학업중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초기 교육 시스템의 부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단체 기숙생활로 인한 또래 간의 갈등관계나 성적 문제가 학업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례자 B씨의 자녀는 국제학교에 6학년으로 들어와서 현재 11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사례자 B씨는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또래 간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우리 딸은 6학년부터 8학년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이때가 제일 예민할 때잖아요. 그 당시 애들을 보면 학업이나 학교생활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기숙사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고 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딸도 7학년 때 힘든 시기(왕따 경험)를 겪었지만 다행히 잘 이겨냈죠. 딸이랑 친한 친구들 중 여러 명이 이 기간에 학교를 나갔어요. 처음 몇 개월은 딸들이 울면서 집으로 전화가 와도 엄마들은 좀 참고 지내보자고 딸들을 설득하다가 결국은 애들을 빼더라고요.”(사례자 B)

제주 국제학교의 재학생들의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교 기숙생활의 어려움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해외 유학처럼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곳으로 기대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선택해서 온 학생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90% 이상이다.<sup>39)</sup> 이러한 현실은 이곳 학부모들의 큰 불만이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고는 세 학교 선생님들과 그 가족, 그리고 약간의 중국인 유학생이 전부예요. 학교 내에서도 학생 대부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대부분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영어를

제 26호, 2015, 13~14쪽. 2013년도 당시 국제학교 학생 수의 정원대비 미충원 상태 및 재학생의 학업 중도 탈락으로 인한 문제가 국회 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다. 여기서는 학생 충원을 증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미충원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재정 적자 악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39) 국회입법처, 앞의 글, 2015.

유도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고 쓰는 영어는 늘었는지 모르지만 말하는 영어는 진짜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JDC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국인 학생으로 정원을 채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제학교예요. 다 한국어를 뿐인데.”(사례자 A)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사항 이외에 교내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수영장, 탁구, 헬스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학교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통학생은 방과 후나 주말에 사용할 수가 없다. 기숙생활 학생보다는 통학생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도시 내에는 취약하다고 사례자 J씨는 말한다.

“하드웨어인 학교시설들은 최고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기숙사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자유시간에 이거저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학생들은 방과 후에는 학교 내 출입을 제한해버려요. 기숙 학교의 보안문제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방과 후나 주말에 사용을 못하게 하니깐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사례자 J)

한편 국제학교는 해외 명문 사립학교의 교육시스템이다.<sup>40)</sup> 그에 따라 이곳을 선택한 학부모와 재학생은 국제학교의 교육만으로 교육 전반이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이런 기대감과 달리 국제학교는 한국 엄마들의 전반적인 교육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녀 대부분은 한국 대학보다는 해외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서도 유학 목적의 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유학과 출신의 사교육 강사가 부족하여 그 희소성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보통 한 과목에 많게는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에 이르며, 부족한 과외 선생으로 인해 고액을 지불하면서 과외를 하고 있었다. 사례자 D씨는 자녀에게 인간적

40) WASC와 IB 인증 시스템.

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국제학교를 선택했으나 고가의 맞춤형 사교육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회의감을 표현한다.

“한국학교의 비인간적이고 지옥 같은 환경을 내 아들과 딸이 경험할 것을 상상하니 끔찍해서 여기 국제학교를 선택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하기 전까지는 쾌적하고 인간적인 학교 환경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너무 행복했고 들떠 있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전반적인 교육이 모두 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여전히 학원을 가야 하더라고요. 오히려 국제학교 학생을 위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일반 학원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IVY 리그<sup>41)</sup> 출신 선생님이라 그런지 과외비가 상당히 비싸요. 학부모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운 좋았을 뿐 아니라 아이 성적만 올려주면 고액이라도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수업료를 점점 올려요. 국제학교 학생들이 봉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서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아요. 주변 엄마들이 돈이 돈이 아니라 종잇장 같다는 푸념도 많이 해요.”(사례자 D)

국제학교의 통학생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도 주말에는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 고등과정의 재학생은 기숙사에서 외출을 신청하면 자유롭게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사례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매주 주말에 서울로 데리고 가서 학원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학과 출신의 선생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인터넷 메신저로 과외를 대체하기도 한다.

“많지는 않지만 주말마다 과외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헛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보통 체력으로는 힘들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허락을 받고 주중 방과 후나 주말 외출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주말마다 과외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거나, 혹은 제주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데요.”(사례자 I)

41) 아이비 리그(Ivy League)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의 스포츠 팀으로 이루어진 운동 경기 연맹이었으나, 현재는 명문 사립대학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브라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등이 이에 속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방학기간에 원래 거주지로 가는 이유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 외에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자녀의 학업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과 더불어 고학년은 SAT(미국 수학능력시험)를 준비하기도 한다.<sup>42)</sup> 사례자 I씨는 이곳에서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된다면 원거주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방학 중에는 원래 살던 집으로 가요.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 위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학교 성적 때문에. 또 SAT를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실력 있는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짧은 단기 방학엔 여기에 있을 의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사례자 I)

제주의 국제학교에는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대체하는 학생의 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총 재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교의 교육시스템은 한국 부모들의 교육 욕구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많은 이유로, 유학과 출신의 입학 상담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으로 인해 오히려 학부모들은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은 외형적 학교시설이나 교육기반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국의 제도권 학교보다 질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기숙사 생활로 인한 재학생들의 단체생활에의 적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숙학생들은 하루 종일 또래집단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왕따, 소외감 등과 같은 갈등 상황을 경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따

42)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SAT>). 미국 대학 입학 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Scholastic Assessment Test)는 비영리 시험전문회사인 CollegeBoard사가 주관하는 여러 개의 시험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SAT에는 SAT 논리력 시험(SAT Reasoning Test)과 SAT 과목별 시험(SAT Subject Test)이 있다. 에스에이티(SAT)라는 줄임말은 본래 Scholastic Aptitude Test(수학 적성시험)였으나 1990년에 Scholastic Assessment Test(수학능력평가시험)으로 바뀌었으며 현재에는 줄임말이 아닌 SAT 그 자체가 이름으로 쓰인다.

라서 국제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학생으로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정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의료 여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의료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에서 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제학교 내에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 도시 안에는 병원과 약국 등과 같은 의료 시설이 전혀 없다. 이들은 대정읍 지역의 의원이나 제주 시내 병원을 주로 가고 있다. 거리상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의료 응급상황 시에 사용할 각종 비상약품을 집안에 준비하고 있었다.

“제 딸은 KIS<sup>43)</sup> 11학년예요. 작년 겨울에 딸이 독감이 걸려서 심하게 아픈 적이 있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제주시 노형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갔어요. 보통 약을 이틀이나 3일치 약을 처방하는데, 여기서 시내로 나가려면 부담이 있고요, 회복이 늦어지면 어쩌거나 걱정이 들어서 의사선생님께 사정을 해서 약을 일주일 분량으로 처방 받았어요. 애가 밤이나 주말에 아프면 어쩌거나 걱정되어서 모든 종류의 약을 항상 비치하고 있어요.”(사례자 H)

위 사례자 H씨처럼 이곳 주민들은 대정읍 인근에 있는 의원을 종합병원처럼 이용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병원 같은 의료시설들이 전혀 없어서 불편한데다, 주요 도심과는 거리가 멀어서 심리적 고립감과 더불어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제 아들은 몸이 약해서 급성편도염으로 올해에만도 벌써 세 번이나 제주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40도가 넘어 떨어지지 않을 때 응급실로 갔어요. 여기는 병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입원했어요. 여기에 병원이 있으면 통원 치료

43)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

를 하며 학교를 여러 날 빠질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좀 좋아지다가도 혹시 또 열이 올라 응급상황이 발생할까봐 며칠씩 입원했어요. 10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인데 지금 10일을 다 채워 걱정이예요. 이번 학년 끝날 때까지 또 아프면 큰 일이라 하루하루 위태롭게 지내고 있어요.(사례자 I)

사례자 I씨의 자녀와 같이 급성 질병이 발생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생활 경험은 이곳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례자 I씨의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의 경우 10일 이상 결석을 하면 유급을 시키는 학내 규정이 있다. 이러한 국제학교의 규정은 이곳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더욱 큰 불안감을 준다.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교육권의 침해로 직결될 수도 있음을 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정책에 의해 제도권 학교 초등학생은 무상으로 구강검사를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곳 국제학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검진 비용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의 개별 부담 규정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여기 학비도 비싼데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기숙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 병원에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부모와 떨어져 살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특별히 진통이 있거나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아요. 충치 같은 것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사례자 J)

학부모들이 자녀를 국제학교의 기숙사로 보낼 때는 자녀의 모든 생활 전반을 학교에 위임했으나, 학교가 학생의 건강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사례자 J씨의 말처럼 국제학교의 학생 건강검진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다. 기숙학생들이 학기 중에 스스로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할 기회는 지극히 낮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기숙학생에게는 학교 자체에서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차원에서 의료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의료 및 제반 시설들이 미비되어서 이곳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여성 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적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 4. 여가 및 문화 여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도시 구획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이다.<sup>44)</sup> 그러나 이곳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주민을 위한 문화기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귀족도시라는 이름과는 매우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미비와 주요 도심과의 먼 거리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제 딸과 친구들은 이곳에 노래방이나 애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신제주 바오젠거리나 시청에 가서 놀아요. 애들이 옷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싶는데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근처에는 거의 없어요. 편안한 곳에 가서 수도도 떨어야 되는데……. 주말에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먼 제주시까지 왔다갔다면서 거리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요.”(사례자 B)

도시기반 시설이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조성된 이곳 실정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기반시설이 미미한 이곳의 여건은 아동·청소년의 불편함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자들 가운데 몇몇은 제주시내로 이사하였다.

“2012년에 여기는 주택도 캐논스빌리지 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적막한 환경 때문에 나 자체도 너무 우울해져서 2년 뒤에는 제주시 연동 아

44) 김태경, 앞의 글, 2016.

파트로 이사했어요. 제주시에 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림도 그리러 다니고 필라테스도 했죠. 딸들은 먼데서 통학을 해서 피곤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한 거잖아요”(사례자 H)

한편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 시킨 후에, 자신의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곳자왈도립공원과 올레길(14-1코스)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환경 외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여기 자연환경은 참 좋아요. 근데 자연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쇼핑이 중요해요. 이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쁜 그릇도 사고, 우아한 곳에서 차도 마시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데가 없어요. 돈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다고 할까요?”(사례자 F)

사례자 H씨처럼 타 지역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이주했으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 이곳의 문화관련 시설은 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제주영어교육센터가 유일하다.<sup>45)</sup>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 생활은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우울감도 함께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우울감은 이주 초기에 주민 간의 상호관계의 부재 혹은 익숙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주민들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주 초기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생활지침서 혹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여가 및 문화 시설의 미흡함은 장기적 차원에서 이곳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 생활 안내 책자나 상설 민원상담 센터 마련 등이 공공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주요 거주자인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살

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http://www.jeju.go.kr/edu/eng/educity/summary/greeting.htm>). 제주영어교육센터는 영어 상용화 지원 기능, 영어교육 연구개발, 영어교육과 연구 기능, 영어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기능, 제주영어도시의 영어 상용화 지원 등을 하는 곳이다.

고 있는 교육도시라는 이곳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아동·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마련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보인다.

### 5. 정체성 : 소속감 및 유대감

이곳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자가 면접한 사례자들은 ‘자녀의 영어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거주한 이들이 대부분이며, 애초부터 원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고 단기 거주를 계획하고 이곳으로 왔다.

“불편한 건 많죠. 근데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애 학교 때문에 와 있는 거라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여기 환경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모임 같은데 나가면 이것저것 불편하다는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의견을 모아 어디 관련 기관에 항의 같은 걸 안 해요. 잠깐 머물다 떠날 곳인데요.”(사례자 J)

이곳에서 주로 생활하는 엄마들은 남편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원래 거주지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연구자는 사례자들이 영구 정착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에 왔기 때문에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학부모 모임 이외에 다른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학부모끼리 사교 모임을 통해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원래 거주지로 가면 이곳에서 형성된 사교적인 만남은 육지에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교육이라는 특수한 매개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3년 살았는데 엄마들이 많이 사귀어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방학기간에 서울에 돌아가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원래 터전으로 돌아가니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거기서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 동네에서 쇼핑하느라 여기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더라고요.”(사례자 C)

사실상 이곳 학부모 간에 모임은 인간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이다. 특히 사적인 친교 모임으로 시작해 자녀의 성적이 주요 이슈가 되는 고학년 학부모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학년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 관계로 바뀐다. 사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녀의 성적에 대한 비교 등이 고학년 학부모들을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낯선 환경에서 학부모 모임이 유일한 사회적 관계이지만, 이들의 관계는 자녀의 성적 경쟁으로 인해 언제든지 서로 경쟁 관계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경쟁의식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대학 입학원서를 쓰는 12학년이 되면 엄마들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sup>46)</sup> 누구는 학교에서 특혜를 줘서 대학을 잘 갔다더라. 혹은 누구는 성적이 내 애보다 안 좋은데 대학은 어떻게 더 잘 갔는지 모르겠다는 소문이 돌아요. 대학 합격발표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흉흉해져요. 그래서 12학년이 거의 끝나는 4월에 졸업파티가 있는데, 올해에도 아이들 반 이상이 참석을 안했대요. 부모들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애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죠.”(사례자 F)

“10학년까지는 정기적으로 학년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SAT(수능) 점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11학년이 되니까 엄마들이 예민해져요. 모임도 잘 안하구요. 어떤 애는 SAT 점수가 잘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니 만나지 않는 거 같아요. 솔직히 저도 골프를 치고 싶지만 또 성적 얘기가 나와 열받을까봐 골프도 안하고 있어요.”(사례자 E)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형성된 사교모임으로 학부모 간의 일시적인 유대감이 생기지만, 이것이 곧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이라는 소속감은 아니다. 학부모 모임의 결속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46) 참고로 국제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9학년에서 12학년까지가 고등과정이다. 주로 11학년부터 대학입시준비를 위해 SAT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12학년 1학기에 입시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2학기 전에 대학 입학 원서 지원을 대부분 마무리한다.

정보를 얻거나 이곳 생활의 적응을 위해 선택한 전략적 행위로 보인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제주지역으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만, 이것은 정착하기 위한 목적보다 제주도민으로서 받는 각종 혜택(관광 할인, 멤버십 할인 등)을 누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주도민’에 소속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도민할인을 해줘요. 비용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제주도도 전입신고 했어요. 관광지에서도 도민 신분증 보여주면 할인해주잖아요. 호텔 뷔페를 가도 도민은 15%씩 할인해주고 하더라고요.”(사례자 A)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은 도시 환경의 불편함이 있어도 단체로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다.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이곳의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요구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구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개인적인 경제력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저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 잘하나, 성적은 잘 나왔나에 대해서만 온 신경이 곤두서있고,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학교에다 항의해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학년 전체 의견을 모아서도 하고요.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귀찮게 항의 하느니 그냥 내 돈 쓰고 만다는 생각을 하죠. 아이 과외비나 엄마들 취미생활이나 쇼핑에 드는 액수를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종잇장 같다’고 불평하지만, 진짜 속내는 ‘나 이렇게 돈 많아’라고 자랑하는 거죠. 당장 나 자신도 그렇다는 걸 부정 못해요.”(사례자 D)

사례자 D씨의 말처럼 이곳에 사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느끼는 불편함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자녀의 학교 이외의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불평만 할 뿐 서로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부처에 항의하는 등의 단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곳 주민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인 특수 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보다는 자녀의 성적이나 진학만을 최대의 관심사와 가치로 여기며 이와 관련된 인적 연결망을 선택하고 있다. 이

도시 공간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경제력으로 해결하고 있음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을 위한 임시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곳 주민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주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고 있었다. 이들의 개별주의적 행위는 이 도시에 대한 행정 집행조직의 정책적 관심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V. 나가며

한국의 산업화 이래로 제주지역의 개발은 국제자유지역 건설을 위한 자본 획득을 위해 관광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국가에 의해 제주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는 개발정책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사업 가운데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내국인학생 뿐 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외국에 유학을 간 것과 똑같은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국가정책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언론 매체 등에 의해 알려진 귀족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주거와 일부 학교시설을 제외하고는 도시 환경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그 이외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의료 여건 등은 매우 취약한 편으로 드러났다. 교육 여건은 우수한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교육시스템이 한국인 학부모의 전반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사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자들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주 공간이라기 보다는 한시적인 임시 거주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자녀의 교육기간에만 이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계획한 교

육기간이 끝나면 원거주지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간 이후에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지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이라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은 거의 없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서 외화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기획된 공간이지만, 이곳 거주 환경은 기반시설들이 매우 취약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인근지역에 관광지구가 형성되면서 폭등한 이곳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시설 임대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 이러한 비싼 임대료와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국제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은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사업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후에도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의 입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구 유입과 유출이 빈번한 이곳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곳 주민의 이주 초기 적응 및 정착에 관해서는 공공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취약성은, 이를 기획한 행정 관료와 도시계획 전문가가 도시 조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예측할 수 없었거나, 물리적 공간 조성에 비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외형적 도시 공간은 존재하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도시의 주체인 인간은 정작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도시기반시설의 최종 기한이 몇 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시의 취약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차원에서 고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여성이 주요 거주자인 이곳의 특수성을 감안한 도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과 관련된 문헌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곳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드러내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사례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과제로 제주지역 사회의 일원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주민 및 국제학교 재학생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 특수한 도시 공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토착주민과 교육 이주자 간의 사회적 관계,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사 간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연구논문

- 국회입법처,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NARS 현안보고서』 제 26호, 2015.
- 김미량·김민영, 「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耽羅文化』 54호, 2015.
- 김민영·최현,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耽羅文化』 50호, 2015.
- 김민호, 「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2호, 2007.
- \_\_\_\_\_, 「세계화에 따른 제주 지역 국제학교 설립 및 일반계 학교의 대응 방안」, 『초등교육연구』 Vol.14 No.1, 2009.
- 김봉애·김수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건축물 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Vol.11 No.4, 2003.
- 김원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제주의 영어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8.
- 김원보·이용민, 「필리핀의 사례검토를 통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방안」, 『영어영문학』 제12권 2호, 2007.
- 김인성·황경수·오윤정,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濟州學研究』 47집, 2017.
- 김종훈, 「국제자유도시의 언어정책 :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제주의 경우」, 『영어영문학 연구』 제46권 4호, 2007.
- 김태경,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16-10, 한국경제연구원, 2016.
- 박순철, 「동북아의 교육허브를 꿈꾼다-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유치 추진 상황」, 『본질과 현상』 22호, 2010.
- 염미경,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2015.
- 오윤정 외,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변화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4.
- 윤명희, 「제주지역 외국인선원의 이주와 적응」,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올아카데미, 1995.
- \_\_\_\_\_,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올아카데미, 1998.
- 조성윤,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신행철외, 『제주사회론』, 한올아카데미, 19971.
- 양영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9.
-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16.

## 2. 언론 및 인터넷

- 동아일보, 「영어교육도시가 제주경제 효자네」, 2014년 3월 24일자.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
- 미디어제주, 「소수 상류층 위한 귀족학교 VS 교육산업 위해 필요」, 2008년 8월 18일.
-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SAT>).
- 중앙일보, 「노○정,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벌금 1500만원」, 2013년 8월 11일자.
- 제인스(<http://www.jeins.co.kr/index.haewul>).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www.jdcenter.com](http://www.jdcenter.com)).
- 제주의소리,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성 없고 사교육 ‘황금어장」, 2008년 9월 8일자.
- 제주의소리, 「‘교육+정주’안착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완성과제는?」, 2016년 4월 27일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http://www.jeju.go.kr/edu/eng/educity/summary/greeting.htm>).
- 한겨레, 「박○아·노○정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 2013년 2월 19일자.
- 한국일보, 「문화예술, 호텔 등 특성화학교 제주영어교육도시 유치」, 2017년 4월 21일자.
- YTN, 「제주 영어 교육도시 눈에 띄네...네 번째 국제학교 착공」, 2016년 5월 1일자.

Abstract

## Jeju Global Education City and the Reality of Its Residents' Living Conditions

Kim, Jung-Im\*·Yun, Myung-Hi\*\*

Jeju Global Education City was established during the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movement in the late 2000s to create a global education environment and prevent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With the rise of new international schools in 2011, many families moved to the city to endorse their children's education. However, as opposed to the image that the government wanted to replicate, this research outlines the lowered living standards and inadequate yet superficial city environment that these residents live in. Through thorough case studies on the daily lifestyle of the residents we drew upon the reality of the living conditions in this city.

To summarize the results, unlike the wealthy and vibrant image that was reported in the media, the city displayed deficiencies in areas of entertainment, healthcare, and convenience. It only catered outstanding residential environments to the residents. One of the leading causes to this phenomenon is the high rent prices in the area. To receive the top-notch education, many families temporarily moved to the area and paid high prices. As seen from the demographics of the interviewees, many families came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amilies

---

\* Completion of the Doctoral Course in Sociology at Jeju National Univ.

\*\* Researcher of Jeju Research Association for Alternative Society.

viewed the city as a temporary residential area, and moved back to their original house back in the mainland when their children finished their education. Thus, these families do not attach themselves deeply into the community as residents, but instead engage in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 parent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Key Words : Jeju Global Education City, Migration for Education, Change of Jeju Society,  
Neoliberalism and Cities.

**교신저자 : 윤명희** 63210 제주시 연삼로 399  
(E-mail : coffeholy@gmail.com)

논문투고일: 2017. 04. 30

심사완료일: 2017. 06. 03

게재확정일: 2017. 06. 05